
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뿐입니다</b>	
		배포일자	2023년 3월 12일(일) 총 3매		
담당 부서	상 수 도 사업본부	담 당 자	• 수질정책팀장      오동철 ☎720-2501 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 이왕재 ☎720-2507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,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**  
 - 인천시, 찾아가는 수돗물 진단 서비스 ‘인천형 워터케어’ 13일부터 본격 시행 -  
 - 주1회 야간 시간대(18~21시) 수돗물 수질검사 시범 운영 -  
 -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3일부터 누구나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돗물 안전진단 서비스 ‘인천형 워터케어’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‘인천형 워터케어’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고, 배관 내시경 검사 등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돗물 건강 컨설팅 서비스다.

올해 사업은 관내 가구의 3.4%에 해당하는 총 4만3,83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, 인천시민 44명을 수돗물 수질 검사원 ‘워터코디’로 공개 채용해 운영한다.

새로 채용된 워터코디들은 수돗물 안전성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실습, 현장 실무 및 친절 교육, 수질 민원 대응 사례 습득 등 5일간의 집중훈련을 수료하고, 현장을 찾아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.

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는 방문형 또는 비대면 수거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.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1차 수질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, 수질 부적합 항목이 발생하면 6개 검사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의 2차 검사를 먹는 물 검사기관인 ‘맑은물연구소’에서 진행한다.

올해부터는 1인 및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 각 수도사업소에서 사전에 예약받은 세대를 대상으로 주 1회 야간 시간대(18 ~ 21시) 수질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
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는 물사랑누리집([www.ilovewater.or.kr](http://www.ilovewater.or.kr))에서 24시간 언제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 미추홀콜센터(☎120)나 가까운 수도사업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워터코디가 임의 방문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검사받을 수 있다.

이웅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수질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‘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’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”며, “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깨끗하게 생산한 ‘인천하늘수’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무사히 다다르고 있는지 시민들께서 직접 확인해 달라”고 말했다.

<붙임> 2023년 인천형 워터케어 워터코디 직무교육 사진

